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대상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또다시 돌아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진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나무리를 잘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건설장의 전경을 바라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문수물놀이장의 면모가 하루가 멀게 달라지고있다고, 며칠전에 찾아왔을 때보다 몰라보게 변모했다고, 군인건설자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아버지장군님의 립상을 모실 실내물놀이장 중앙홀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만수대창작사에서 바다가를 형상한 전경화를 원근감이 나게 잘 그려졌다고 치하시었다. 물미그림대들이 설치된 실내물놀이장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멋있다고, 자연재파조경을 보장해주니 좋다고 하시면서 물미그림대의 지지기둥들의 색을 흰색으로 처리해야 산뜻하면서도 보기 좋을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탑의실을 돌아보시면서는 거울을 설치하고 건발기를 놓아주는것을 비롯하여 물놀이장을 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었고 물매를 잘 지어주어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운동과 오락을 할수 있는 실내체육관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받고 원래설계에는 없던 실내체육관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웠는데 실내물놀이장에 체육관을 함께 건설해주시 정말 잘했다고, 군인군대에 임무를 주면 못해내는 일이 없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야외물놀이장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물놀이장건물의 벽면들을 물방울, 갈매기, 곰둥이 등으로 형상하

고있는것을 만족하게 보여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야외물놀이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각종 물미그림대들의 조립정형과 물놀이수조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잘 꾸리고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불과 며칠사이에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하시면서 문수물놀이장이 완공되면 문수지구가 천지개벽된다고, 그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정말 좋다고 말씀하시었다. 문수지구의 천지개벽은 무조건성, 절대성의 정신을 지닌 인민군대가 아니고서는 안아울수 없는 기적이라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문수물놀이장건설을 최단기간에 끝냄으로써 세계적인 물놀이장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 조선로동당의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완공단계에 이른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미림승마구락부에 일떠서고있는 실내승마훈련장, 승마복사소, 야외관람석, 원형승마훈련장, 승마학교, 마사 등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설계와 공법의 요구대로 승마구락부의 여러 건축물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질적으로 다그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특히 지난 8월 현지지도로 하시면서 추진 과업대로 종축연구소, 수의병원건설을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었다. 건물외벽에 천연모재를 붙이고있는것을 보시고 건축물들이 통나무로 지은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시면서 방부제처리를

잘하여 목재의 질감이 살아나면서도 부식되지 않게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승마구락부의 토사주호와 잔디주호시공정형도 자세히 알아보시었다. 토사주호의 습기보존능력과 살균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 나라의 유명한 개성석비베를 소금과 섞어 주호바닥에 깔아놓았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승마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최대한 보장해주시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주어야 한다고 이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잔디주호를 보시고 승마주호에 심는 잔디는 생활력과 밝힘견딜성이 강한 우리 나라의 성친잔디가 제일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미림승마구락부의 원림조성정형을 자세히 알아보시었다. 미림승마구락부를 찾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산책도 할수 있게 산보호도를 잘 꾸려주어 충분한 휴식을 할수 있게 아담한 정각들도 세워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미림승마구락부건설이 완공단계에 이른것만큼 승마구락부운영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창건 기념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선물인 미림승마구락부건설을 제기일내에 무조건 끝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완공단계에 이른 구강병원건설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구강병원건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추진정형과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앙홀, 관동홀, 구급치료실, 재료준비실, 약국, 상점 등으로 이루어진 병원 1층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중앙홀과 관동홀을 돌아보시며 실내조명을 밝고 온화한 감을 줄수 있게 계획한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이곳에 놓아줄 가구들도 손색없이 잘 만들어질데 대하여 지시하시었다. 구급치료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구급환자들이 아무때나 찾아와 이발치료를 받을수 있게 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었다. 병원 2층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외과, 내과, 소아과치료실 등을 돌아보시었다. 매 치료실들을 구석구석 돌아보시며 내부부감작업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번에 병원에 놓아줄 구강종합치료기 30대를 당에서 마련하였다고, 계획된 30대를 설치해 주면 하루에 300여명을 치료할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2층 홀에 꾸러지고있는 어린이놀이장을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오게 될 부모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게 나무리를 잘해 주라고 이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3층에도 오르시어 회의실, 사무실 등을 돌아보시며 의사, 간호원들이 리용하게 될 방들을 잘 꾸려주라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구강병원을 아담하게 건설했다고,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구강병원의 이름을 《류경구강병원》으로 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동행한 일군들과 보건부문 일군들에게 구강병원건설을 마무리하고 병원운영을 잘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구강병

원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과 해당 부문 일군들이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개원하게 되는 류경구강병원을 인민들이 실질적인 덕을 보는 병원으로 훌륭히 완공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5월 1일경기장을 일신시킬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현지에 나와 돌아보시면서 개건보수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연혁소개실과 혁명사적물보존실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5월 1일 경기장의 관람석과 료상주호, 축구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5월 1일경기장은 수용능력이 대단히 큰 경기장이라고 하시면서 경기관람에 편리하면서도 보기에도 좋은 새 의자들을 설치하여 관람석을 완전히 깨끗이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경기장바닥의 료상주호와 축구장에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고무판과 인공잔디를 깔아주며 야간조명시설들을 그 어떤 경기장들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잘 갖추어주라고 지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경기장내부에 꾸려진 실내훈련장, 선수휴게실, 관람자휴게실 등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5월 1일경기장을 우리 나라 체육시설의 상징으로, 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경기장으로 훌륭히 개건보수하자라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5월 1일 경기장개건보수는 날로 높아가는 체육열풍속에 주체체육을 더욱 발전시키며 나라의 국력과 문명을 과시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었다. **본사기자**

조국 소식

덕성광산에서 철정광생산성과 2배로 확대

덕성광산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공화국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한 긍지를 안고 생산돌격전을 벌려 철정광 생산을 9월 중순현재 지난 해 같은 때에 비해 2배로 늘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광산에서는 구체적인 계획밑에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 대중을 증산투쟁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이 현장들에 나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면서 이신작적으로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다. 매장장이 풍부한 덕재광구의 채굴장을 타고있는 광부들은 마식령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과 기쁨을 받아야 종전보다 발파회수를 늘이고 박도처리를 확고히 실행시켜 하루계획을 넘쳐수행하고있다. 선광직장 노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여러건의 새기술혁신안을 받아들이고 마광기, 과패기 등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날마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생산장성에서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공무직

장 노동자들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뿔과 기계설비들의 수리정비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고있다. 중기계, 운수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들에서도 사회주의중산경쟁을 활발히 벌리면서 집단적혁신의 불길 을 세차게 지퍼올리고있다. 광산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조국의 부강변영에 이바지할 애국의 일념안고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재중 동포들이 경축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앙 지구협회 경축모임이 8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있었다. 모임에는 조용환회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재중조선국민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에 최근 남조선당국은 저들의 《원칙있는 대북정책》이 누구를 《견인》하고있느냐니, 그 누구의 《변화》나 이 뉘니 하면서 종제 발전하던 북남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망동짓을 하였다. 하여 당면한 일정에 올라 있던 흥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가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되었으며 북남관계에는 또다시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다. 벌어진 사태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를 적대관계로 삼고 모든 대화와 협상을 대결수단으로 악용한것으로 하여 빚어지게 되었다. 남조선당국이 원칙 아닌 《원칙론》을 내놓고 북남관계에서 이룩된 일련의 성과가 마치 저들의 《원칙론》의 결실인것처럼 외국하는것은 완전한 현실기만이며 《대화있는 대결》을 추구하려는 융통한 기도의 뚜렷한 발로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70년대에 7.4공동성명이 발

재중동포들 공화국창건 65돐을 뜻깊게 경축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이어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린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돌아보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경축 중앙보고대회를 TV로 시청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 지구협회산하 지부들과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연변지구청년위원회는 9일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경축모임을 진행하였다. 모임 장소 정면에는 동을 강화하는 도발행위를 로 풀적으로 감행하였다. 《6공》독재자는 앞에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도 돌아앉아서 공화국을 암살하려는 외세의 반공국책수동에 편승하고 친락적인 《팀 스프리트》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아 조선반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주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북남관계개선을 거부함으로써 집권 5년간을 대화공백기로 만들었다. 지나온 북남관계사가 명백히 보여주는바와 같이 대화와 협상이 정략적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언제 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이 실현될수 없다. 현 남조선당국이 집권초기

들을 동원하여 반공화국베라살도노름을 공공연히 벌려놓는것도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 다. 그리고도 공화국의 선의와 야망으로 마련된 북남합의를 놓고서는 제편에서 그 무슨 《원칙의 소리》라고 떠들며 희탕케 늘어났다. 속에는 칼을 품고 《대화》와 《신평》를 떠드는 《대화있는 대결》속에서 어떻게 대화와 접촉, 래왕과 협력이 진행될수 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이 이루어질수 있겠는가. 대결에 리용되는 대화와 협력은 골백 번 하여도 대결의 악순환만을 되풀이할뿐이다.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상대방을 해치려는 대결은 절대로 랑립될수 없다. 대화는 대결을 끝장내기 위한것이고 대결은 대화가 아닌 불신과 전쟁을 불러오는 화곤이다. 대화나 대결이나, 남조선당국은 이제 민족앞에 명백히 자기 립장을 밝혀야 한다. **김연희**



신물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해 간다

* 제9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진행 *



국제상품전람회는 나라들 사이에 대외경제관계를 확대하며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되고있다.

지난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제9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는 최첨단을 돌파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공화국의 발전면모를 보여준 의미깊은 계기로 되었다.

중국, 도이칠란드,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싱가포르, 오스트랄리아, 이탈리아, 튀르키예, 벨스카, 중국대북 등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온 220여개의 회사들이 참가한 이번 전람회에 공화국에서는 CNC공작기계와 전기 및 전자제품, 경공업제품, 식료품, 의외기구, 건재 및 화학제품, 료전기제품들을 출품하였다.

전람회기간 아시아와 유럽등에서 온 여러 나라 기업관계자들은 공화국이 서남의 끈질긴 반공화국제재와 고립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주체의 가치를 높이 들고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변혁을 이룩해나가는데 대해 감탄했다.

전람회에 참가한 많은 나라 참관자들의 이목을 끈것은 공화국의 련각기계회사에서 출품한 CNC공작기계들이었다. 이곳 회사에서 출품한 CNC공작기계들을 주의깊게 돌아본 유럽의 한 회사사장은 《최첨단기술이 요구되는 CNC설비들을 제함으로 만들

어낸것만 보아도 세계적으로 앞선 수준에 당당히 올라선 조선의 과학기술발전수준을 알수 있다.》고 말하였다. 어느 한 나라의 기업관계자는 자기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많은 돈을 주고 CNC공작기계들을 사다쓰고 있다고 하면서 발전된 나라들의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제품들을 만드는 련각기계회사와 경제무역거래를 가질것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밝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을 보장해

주는 열병프와 열교환기, 랭수기, 공기조화기들을 출품한 료해합작회사전시대, 속도라 힘에 좋고 연료소비가 적게 드는 논밭갈이용 소형 트랙토르, 자동차제품들을 내놓은 기계무역총회사와 해상물건기재무역회사전시대 그리고 TV시청기, 무선전등기, 다국어사전 등을 갖춘 관형컴퓨터들을 내놓은 조선컴퓨터중심전시대 앞에도 많은 참관자들로 붐비었다. 중국에서 온 한 회사관계

자는 지능형외국어학습프로그램, 음악기초교육프로그램, 안드로이드용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실용성있는 소프트웨어제품들을 출품한 조선별기기술교류사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프로그래밍분야에서 조선의 세계시장 진출능력이 대단하다. 이수준이면 국제시장에서 능히 다른 나라 제품들을 압도할수 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하기에 여러 나라의 기업관계자들은 《전람회기간 조선

인민이 이룩한 훌륭한 과학기술성과들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밝은 전망을 가지고있는 조선과 다양한 경제무역거래를 확대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내외의 큰 기대와 관심속에 성황리에 진행된 제9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는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강성국가의 명마루를 향해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전진속도를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본보기자 홍범식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알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10. 4선언발표 6돐에 즈음하여 기념특강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제목: 10. 4선언은 조국통일의 대강

강의시간: 1강의

강의날자: 주제102(2013)년 10월 4일

홈페이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E-mail): schoolmanager@sili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국화-목란꽃

최근에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우고있는 노래 《조국찬가》에는 《구름우연 참매날고 목란꽃 핀 이 강산》이란 구절이 있다.

조국찬가로서의 서정성을 한껏 돋구어주고있는 이 구절에 나오는 목란꽃은 조선의 국화이다. 국화라고 하면 해당 나무를 상징하는 꽃을 말한다.

고 비교적 매년 하다. 잎들은 거꿀달걀모양이며 길이 12~14cm, 너비 5~10cm이며 큰것은 길이 25cm, 너비 15cm 되는것도 있다.

조선의 국화는 목란꽃이다. 목란은 예로부터 우리 겨레의 사랑을 받으며 함박꽃나무, 목련화라 불리워왔다.

1560년에 나온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여름이면 목욕이 우겨진속에 목련화가 피어 맑은 향기가 코를 찌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목란꽃은 우리 나라 각지(함경북도 대량강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 제외)의 산골짜기, 산허리 등 습한 곳에서 자란다. 나무높이는 2~5m이다. 보통 여름의 원줄기가 뿌리목에서 모여 나와 포기를 이룬다. 꺾절은 연한 재빛이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목란꽃은 아름다울뿐아니라 향기롭고 열매도 맺으며 생활력도 있기때문에 꽃가운데서 왕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였으며 또한 나무에 함박꽃같은것이 피는데 위대한 맛이 있고 나무가 긴장한 맛이 있어서 마치 조선인민의 슬기로운 기상과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나무일도 보기 좋아 세상에 널리 알려진 목란꽃을 국화로 가지고있는것은 공화국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본보기자



우리 민족의 자랑 발명 몇가지

우리 겨레는 뛰어난 지혜와 재능으로 일찍이 훌륭한 물질문화적재부를 창조하여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비교형단검, 금관, 철근, 금속활자, 화약무기, 거북선, 가야금, 측우기, 훈민정음, 대동여지도, 첨성대, 황룡사 9층탑 등과 같이 세계적으로 이름떨치는 발명을 수많은 하였다.

비파(악기의 이름)모양의 청동단검이다. B.C. 4000년기 후반기에 청동기시대문화가 발생, 발전하면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당시 우리 나라의 청동제련기술이 세계적으로 매우 앞선 자리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금속활자: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먼저 발명한 것이다. 네델란드에서는 1423년에, 도이칠란드에서는 1450년에 금속활자를 발명하였는데 고려에서의 금속활자의 발명(11세기말~12세기초)은 그보다 수백년이나 앞선것으로 된다.

측우기: 조선봉건왕조시기인 15세기에 만들었다. 유럽최초의 측우기는 이탈리아에서 1639년에 만든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1441년에 최초로 만든 측우기는 유럽최초의것보다 수백년 앞선것으로 된다.

고려청자: 비취옥과 같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색깔과 특유하고 다양한 무늬 등으로 하여 우아하고 고상한 공예품으로 일찍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었다.

거북선: 16세기에 만들어진 세계최초의 철갑선이다. 우리 나라에서 철갑선의 사용은 유럽에서보다 수백년이나 앞선것으로 된다. 점성대: 7세기 전반기에 건설한 세계에서 이름있는 건물이다. 세계적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천문기상판측유적 가운데서 가장 오랜것이다.

그중에서도 이체를 떠는것은 혼성배우경기이다. 락의 위력을 시워하는 경기복장을 인식으로 갖추어입고 배구장에 나선 두 팀 선수들의 얼굴 차림치고 경기승리에 대한 신심이 어려웠다. 끊임없이 교차되는 공방전



10월 1일은 국제로인의 날이다. 이날을 맞이하며 각지에서 로인들의 다채로운 체육 및 유희오락들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평양시에서도 풍치수려한 대동강변에 자리잡은 대동문공원에서 년로자들의 배구, 장기, 주재 등 여러 종목들의 경기가 한창 벌어지고있다.

그중에서도 이체를 떠는것은 혼성배우경기이다. 락의 위력을 시워하는 경기복장을 인식으로 갖추어입고 배구장에 나선 두 팀 선수들의 얼굴 차림치고 경기승리에 대한 신심이 어려웠다.

끊임없이 교차되는 공방전 속에서 멋진 타격들이 성공될 때마다 관중들의 응원열기도 뜨겁게 올라온 대동강변이 웃음과 환광속에서 들끓는다.

경기가 끝나면 강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오는 대동강 유보도에서는 흥겨운 집단이 펼쳐진다.

년로자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생의 활력을 끊임없이 부어주는 사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비껴호르는 대동강변, 바로 여기서 국제로인의 날인 10월 1일에는 년로자들의 배구 결승경기가 진행되게 된다. 그리고 대동강의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는 로인들의 낚시절경기도 있게 된다.

일어나야 하며 겨울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야 한다. 이 원칙에는 과학적근거가 있다. 봄과 여름에는 날씨가

년로자들의 배구경기

세계 5대문화에 속하는 대동강문화

대동강문화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유역에서 발생한 고대문화이다.

B.C. 30세기초 동방의 첫 국가로 형성된 고조선은 인류역사의 첫 시기부터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고대 문명을 창조하여왔다.

발굴된 유적, 유물에 의하면 대동강유역은 원인, 고신인, 신인 등 인류진화의 순차적단계 거쳐오면서 농경문화를 위주로 하는 높은 수준의 청동기문화, 돌기, 천문, 문자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문화발상지의 하나였다.

돌기때문에 일찍 자연 밤의 랑기를 받지 않으며 날씨가 서늘하고 활동하기에 알맞은 계절이므로 일찍 일어나야 충분한 리용할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방에 세가지 이상의 색깔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많은 방보다는 색깔 가지수가 많은 방이 더 혼잡스럽게 보이고 정돈되지 않은감을 준다.

가장 중요한것은 천장을 진한 색으로 하지 않는것이다. 천장이 진하게 처리되면 낮게 보이므로 방안공간이 좁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천장은 가장 밝고 연한 색을 쓰는 것이 좋다.

이처럼 대동강유역은 인류와 조선사람들의 발원지, 고대 문명의 발상지, 고대문화의 중심지이다. 본보기자

상점을 찾은 손님이 **안전한 금고**에 관심을 가졌을 때 판매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 금고가 정말 안전합니까?》

계절에 따르는 잠시간

덜기때문에 일찍 자면 잘 잠수 없으며 늦게 자야 쉽게 잠들수 있다. 가을에는 날씨가 서늘하고 날이 빨리 어

한 처사로 될것요. 에-이건 나나 동일부어른들만이 아니라 (대동명) 각하의 뜻이요. 알겠소?》

다들 놀러저갈 때였다. 《선배님, 잠깐요.》 원림은 천천히 돌아섰다. 득의만만한 얼굴이 묘한 웃음을 짓고있었다. 《알으시오... 후배를 잘 돌봐주십시오... 참, 언젠간

봄의 협주곡 (6)

단편 소설

옛그제 원림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 찾아온 신애와 만났다.

《그때 그 사람이 옛날과 있어서 미처 알려드릴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흔히 카멜레온이라고 하면 때와 장소에 따라 몸색깔을 바꾸는 동물로만 알고있는데 그 편견이 바로 불행의 화근이랍니다. 카멜레온은 평시에 (나무가지)처럼 위장하고있다가 일단 자기가 포착한 먹이감이 다가오면 놓치지 않고 사정없이 삼켜버리는 무서운 동물이에요.》

그날 원림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에 의하면 변용은 대학 초기부터 신애한테 반하여 군침을 흘리고있었다고 한다. 그는 처녀에게서 의것하고 격절하게 처신했으며 만약 신애가 자기의 사랑을 받아준다면 이 세상 어느 여자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절절히 고백하기도 했다.

신애는 그가 교묘하게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지 않았다.

변용은 두번째이나 결혼한 남자였건이다. 신애가 그를 경멸한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당시 S대학에서는 《한총련》소속 학생들의 총회가 자주 열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냄새맡았는지 경찰이 달려들어 학생들을 잡아가곤 했었다.

신애는 우연한 기회에 그 소동이 변용의 밑고에 의해 벌어진다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날 밤 변용은 술에 만취해서 신애의 집에 뛰어들었다. 처녀를 육체적으로 정복해서라도 그의 입을 틀어막자는 속심이었다.

격분한 신애는 미친듯이 덤벼드는 수개의 뺨을 힘껏 후려쳤다. 그후 대학에서 더 건디어 배기지 못하게 된 변용은 자기의 리상적인 피난처를 군

대로 정했다. 그로부터 몇년 지나 대학을 졸업한 그는 오래전에 얻어맞은 한쪽뺨을 어루만지면서 신애로부터 찾았다. 처녀가 K연구소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변용은 신애가 대학시절 친부단체의 주요성원이였으며 현재도 동향이 좋지 않다고 믿고했다. 결국 신애는 연구소에서 밀려났던 것이다.

원림은 그가 막혔다. 아무 리 그렇다고 해도 한때 자기가 반해서 따라다녔던 처녀를 그렇게 복수한단 말인가. 그것도 몇해가 흐른 오늘까지 잊지 않고 새겨두고 있다자 끝내 물어매친 그 집요성애에 혀를 찰수밖에 없었다. 《아마 파장이 사적당한 것도 심중팔구 그의 작긴일거예요.》 신애는 헤어질 때 《카멜레온》의 다음엔 사냥대상은 바로 원림이라고 알려주었다.

원림은 그때 여유있게 대꾸했다. 《걱정마오. 난 친부단체에 망라된적도 없고 또 그의 뺨을 후려갈긴적도 없으니가.》... 원림은 손전화로 변용을 호출했다.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까닭모르게 마음이 불안했다. 오전시간이 거의 지나갔을 때 연구소 소장이 사무실에 들어섰다. 《자, 인사들 하오. 신입 파장이요.》

원림은 그때 여유있게 대꾸했다. 《걱정마오. 난 친부단체에 망라된적도 없고 또 그의 뺨을 후려갈긴적도 없으니가.》... 원림은 손전화로 변용을 호출했다.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까닭모르게 마음이 불안했다.

오전시간이 거의 지나갔을 때 연구소 소장이 사무실에 들어섰다. 《자, 인사들 하오. 신입 파장이요.》 그가 손짓한 문가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이목구비가 번듯한 얼굴, 멀썩한 양복차림, 툭툭한 몸가짐... 변용이었다.

놀라움과 실망이 한데 엉킨 혼란된 시선들이 원림이 쪽으로 날아왔다. 다시 그 사람쪽으로 날아갔다. 소장은 믿음에 찬 눈길로 신입파장을 보며 말을 이었다. 《물론 신입파장이 실무적 측면에서는 당신들보다 못할수 있소. 그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요. 기본은 이 여러 란 말이요.

변용과장은 이미 대학시절부터 (종복세력) 들을 들춰내는데서 큰 공로를 세웠고 군복무시절에도 (한) 미합동군사훈련때마다 앞장서서 용맹을 떨치곤 했소. 한마디로 철두철미 반복대결정신으로 무장한 투사란 말이요. 우리 연구소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오. 그러니 복에 조금이라도 동조하거나 당국



의 (대북정책) 을 회의적으로 대한다든가 누구든 사표를 내야 하는것요. 그렇게 하는것이 자신뿐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지극히 현명

한 처사로 될것요. 에-이건 나나 동일부어른들만이 아니라 (대동명) 각하의 뜻이요. 알겠소?》 다들 놀러저갈 때였다. 《선배님, 잠깐요.》 원림은 천천히 돌아섰다. 득의만만한 얼굴이 묘한 웃음을 짓고있었다. 《알으시오... 후배를 잘 돌봐주십시오... 참, 언젠간

가 선배님은 당국이 선대 (정권) 들처럼 남북화해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혹시 제가 잘못 들은건 아니니까?》 긴장감이 잔등을 스치고 지나갔다. 자기도 감감 잊고있었던 그 말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위는것을 보니 변용은 그때부터 자기를 노리고있는것이다. 그러면서 마치 평범한 《나무가지》 선배를 한없이 존경하는 대학후배로 철저히 위장한것을 보던 그는 갈데없는 《카멜레온》이었다.

문득 파장의 이야기가 귀전을 아뜨게 때렸다. 《자네도 주의하게. (오포기)를 넘어뜨려려는자가 있으니까.》 그런즉 신애의 말이 옳았다. 파장을 반복대결정신이 투철하지 못한 사람으로 몰아 밀고한자는 분명 변용이었다. 결국 파장은 그를 《나무가지》로 알고 방심했다가 먹히운 《곤충》이었다. 원림은 태연하게 응대했다. 《잘못 들지 않았소.》 《그럼 선배님은...》 원림은 그의 말을 잘랐다. 《유감이지만 난 당신한테서 일방적인 존경을 받을 생각이 없소.》

변용은 아뭏게 웃었다. 《딱한데요. 파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선배님을 하대하면 열사람들이 절더러 뭐라고 하겠습니까?》

변용은 아직도 《나무가지》 흉내를 내고있었다. 원림은 쓰꺼웃듯 입을 다시키다 물었다. 《그래, 말하자는게 뭐요?》 《저... 이제라도 그 주장을 철회할 생각은 없는가요?》 원림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립장은 변함없소.》 변용의 눈가에 미묘한 웃음이 맴돌았다. 《아, 그러군요? 그럼 내친김에 한마디만 더... 보전대 (오포기) 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던데 세상에 절대적인 확신이 있을가요?》 원림은 오른손을 쥐었다놓았다. 변용의 말처럼 절대적인 확신이란 없다. 더구나 반복대결의 광풍이 사납게 불어치는 이 땅에서 그것이 가능할가?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가? 여지껏 추호도 흔들리지 않고 《오포기》를 지켜온 내가 아닌가.